

# 방언 채집 운동에 관하여

정 승 철\*

## I. ‘방언 채집 운동’ 개요

일제 강점 초기, 조선총독부의 어문 정책은 주로 일본어를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그에 동반하여 한국어의 사용을 억제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3·1운동(1919) 이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 기조가 강압에 의한 ‘무단 통치’에서 회유에 의한 이른바 ‘문화 통치’로 선회하면서 총독부는 한국인들에게 어문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민족 계몽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전체 인구의<sup>1)</sup> 80%를 훨씬 넘어서는 문맹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문자 보급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이 운동은 광복 후, 문맹 퇴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표준어의 확장을 도모하거나 사투리의 소멸을 염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방언 채집 운동이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언 채집의 목적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언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점점 사라져 가는 각 지방의 언어·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것. 하지만 어문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는 그것을 정립할 목적으로 방언 채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김홍순(2011: 39)에서는 조선총독부의 통계 연보에 기초하여 “조선인” 전체의 인구를 1917년에 1,661만여 명, 1927년에 1,863만여 명으로 산정하였다.

1930년대에 벌어진 방언 채집 운동은, 표준어 사정을 위한 기초 어휘 자료의 수집에 그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표준어를 정하고자 하나 서울 지역의 말이 모두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sup>2)</sup> 목록상의 공백이 생기고,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방언의 어휘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사투리 교정 및 표준어 교육을 위해서도 전국 방언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유용했다. 이로써 보면 이 시기에는 주로, 표준어의 제정 및 보급 차원에서 방언 채집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와 같은 근대 어문 운동으로서의 방언 채집은 196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 II. 매일신보사의 ‘각지 사투리 모집’

1930년의 새로운 언문철자법이 시행될 무렵, 여러 가지 이유로 표준어 재사정 작업이 이루어졌다.<sup>3)</sup> 그 사업의 일환으로 방언 채집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는,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를 발행하던 매일신보사에서 주관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 9월 18일자 《매일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각지 사투리 모집〉 공고가 게재된다.<sup>4)</sup>

지방 ‘사투리’(방언)를 모아 보고저 합니다. … 標準語라고 결코 모다 완전한 것은 아니니 각 지방 말을 모아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공통적인 것은 표준어에 편입 … 한 지방의 독특한 말과 그 지방 사람의 독특한 액센트는 그 지방의 人情, 風俗과 전래하는 문화를 보여 주는 데도 무엇보다 유력합니다. 그럼으로 각 지방

2) 서울말이더라도 지역적·사회적으로 특수한 것은 표준어에서 제외하는 게 보통이었다.

3) 일차적으로, 한자어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한자어의 경우, 전통 한자음에서 현실 한자음으로 그 표기 원칙이 바뀌므로써 실제로 쓰이는 상당히 많은 한자어들이 새로 표준어가 되었다. 가령, 天地: 텡디→천지. 한편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에 관해서는 정승철(2007)과 정승철(2015) 참조.

4) 이 글에서 원문을 인용할 때에는 한자 표기를 상당 부분, 한글 표기로 바꾸고 띄어쓰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한다(필요 시 문장 부호 삽입).

의 ‘사투리’를 모으는 것은 결코 무용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르면, 매일신보사의 방언 채집은 표준어로 편입할 사투리를 수집·선별하고 전통적 언어·문화를 기록·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운동은, 아래에서 보듯 표준어의 정립과 보급에 그 주된 목적이 놓여 있었다. 다음은 1931년 10월 8일자 《매일신보》에, 〈동무 소식〉으로 실린 글이다.

제군께서도 紙上에서 종종 ‘사투리’를 보았으려니와 참 우스운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절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며 이즉도 표준어가 통일되지 못한 所以<sup>5)</sup>

비록 투고자의 목소리를 빌리긴 했지만 이 글은 매일신보사의 방언 채집 운동이 사실상, 표준어를 정하고 보급하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투리 모집’을 위한 이 투고란의 서두 부분에 ‘공지 사항’으로,



〈사진 1〉 ‘삼수’ 사투리(1931. 11. 7.)

5) 이와 유사한 진술이 〈각지 사투리 모집〉 공고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 표준어에 비추어 보면 지방 ‘사투리’에는 이상스럽고 우스운 것이 꽤 많습니다. 같은 사물을 딴 말로써 표현도 하려니와 같은 말에도 ‘엑센트’가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투리’는 교육의 보급을 따라 표준어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표준어(또는 서울말) 병기 사실을 매회 명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할 만하다(위의 <사진 1> 참조).

사투리: 『 』의 안에 것은 ‘사투리’이요, ( )의 안에 것은 ‘표준어’이니 즉 서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의 독자 투고 ‘사투리’는 1931년 9월 19일에서 11월 20일 까지, 《매일신보》에 총 37회 연재되었다(부록 1에 《매일신보》의 <사투리> 목록 및 전문 수록).

동일인의 중복 투고를 빼면 투고자는 모두 22명이었고 지역별로는, 현재의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두 ‘도’의 자료가 함께 제시된 것이 3번).

| 도  | 강<br>원 | 경<br>기 | 경<br>남 | 경<br>북 | 전<br>남 | 전<br>북 | 제<br>주 | 충<br>남 | 충<br>북 | 평<br>남 | 평<br>북 | 합<br>남 | 합<br>북 | 황<br>해 | 계  |
|----|--------|--------|--------|--------|--------|--------|--------|--------|--------|--------|--------|--------|--------|--------|----|
| 횟수 |        | 1      | 10     | 4      | 1      | 2      |        |        |        |        | 4      | 9      | 7      | 2      | 40 |

함경도가 16회고 경상도가 14회로 압도적인 반면,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제주도는 전무해 지역적 편차가 매우 컸다. 이러한 편중은, 단기간의 ‘독자 투고’에 전적으로 의지한 방언 채집이 보여 주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하겠다.

한편 이 자료에는 각지 사투리 단어에 대응 표준어가 항상 병기된 가운데, 표제어로서의 사투리들은 매회 특별한 순서 없이 제시되어 있다.<sup>6)</sup> 이러한 자료 배열 방식은, 조사를 위한 질문지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들의 조사 및 정리·투고가 이루어졌음을 우회적으로 알려 준다.

6) ‘친족, 신체어, 동물, 식물, 가옥’이나 ‘語尾’ 등, 의미 또는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약간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 III. 조선어학회의 ‘방언 수집’

조선어학회에서는 기관지 ‘한글’을<sup>7)</sup> 통해 방언 채집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글》지는, 1935년 10월(제27호)부터 1942년 5월(제93호)까지 투고란의 형식을 빌려 독자들로 하여금 각 지역의 사투리를 채록·보고케 하였다(부록 2의 《한글》지 수록 〈방언/시골말〉 목록 참조). 그 결과, 투고지는 총 98명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 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평남 | 평북 | 함남 | 함북 | 황해 | 계   |
|----|----|----|----|----|----|----|----|----|----|----|----|----|----|----|-----|
| 횟수 | 5  | 3  | 7  | 15 | 3  | 7  | 2  | 2  | 3  | 9  | 18 | 14 | 18 | 3  | 109 |

이에서 보듯 ‘방언 수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발견되지 않으나, 함경도(32회)/평안도(27회)/경상도(22회)에 비해 전라도(10회)나 강원도(5회)/충청도(5회)/경기도(3회)/황해도(3회)/제주도(2회)는 수적으로 현저히 적었다(전국 2회와 북간도 1회는 제외). 수집·보고할 인력 자체가 워낙 부족한 제주도를 제외할 때 이 통계는 대체로, 자신의 방언에 대한 당시의 지역별 관심도를 비례적으로 나타내 주는 자료로 여겨진다.

한편 조선어학회는 〈방언 수집〉 공고에서 자신들의 방언 수집이 사전 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조선어학회에서는 각 지방 방언을 수집하기 위하여, 4·5년 전부터 府內 각 중등학교 이상 학생을 총동원하여, 하기방학 시 귀향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방언을 수

7) 이 잡지는 1927년 2월에 同人誌의 성격을 띠고 출간되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듬해 10월 폐간되었다(동권 9호). 그 이후 1932년 5월에 《한글》이 다시 발간되었지만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회원 다수가 검거되면서 간행이 중단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한글》은 1942년 5월에 나온 동권 93호였다(광복 후, 1946년 4월에 속간).

집하였던바, 이미 수집된 것이 만여 점에 이를지라, 이것을 장차 정리하여 사전 어휘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언 조사란을 특설하였으니, 누구시든지 이 난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27, 8면)

이와 같은 독자 투고를 통해 조선어학회는 근 7년간, 전국적으로 일반 개 이상의 단어를 수집·보고하였다(임진아 2011). 이들이 수집한 사투리는 ‘방언’ (1937년 1월에 나온 제41호부터는 ‘시골말’)이란 제목 아래, 해당 기간 동안 거의 매회 《한글》에 실렸다.<sup>8)</sup> 이에서는 표준어·사투리의 배열 순서를 대체로 유지한 가운데, 가나다순으로 정렬된 표준어 밑에 해당 지역의 사투리를 열거하였다(〈사진 2〉 참조).



〈사진 2〉 ‘벽동’ 방언(한글 31)

8) 이 시기의 《한글》에는 지역 사투리 이외에도 여러 부류의 어휘들이, 논문 또는 독자 투고의 형태로 실려 있다. ‘놀이말, 노름말(골패어 포함), 심마니말’과 ‘농업 용어, 광업 용어, 陶器 용어’ 등의 특수 계층어는 물론, ‘인명, 지명’ 및 ‘동요, 전설, 속담, 수수께끼, 놀림말’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어휘를 수집·제시한 것이다.

이들 자료는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훗날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조선말 큰사전》(1947)에 “사투리(표준어 아닌 말)”로 수용되었다(‘큰사전’의 〈범례〉 참조). 해당 사전에서, 이들 중 일부는 표준어로 편입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올림말(=사전의 표제어)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교정의 대상으로 비표준 올림말이 되었다.

(《강내.강내이.강녕이.강내 [이] (식) = 옥수수

(《칼치 [이] (동) =갈치

위의 예에서 보듯, 《조선말 큰사전》에서는 “손톱표”(㉡)를 한 ‘강내, 강내이, 강녕이, 강내’와 ‘칼치’ 등을 “표준말 아닌 어휘”로 규정하고 이들 대신에 표준어 ‘옥수수’와 ‘갈치’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독자들이 수집·보고한 ‘시골말’이 대부분, ‘표준어 아닌 말’ 심지어 ‘없어져야 할 말’로 격하되어 버린 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글》을 통한 조선어학회의 방언 채집 운동은 표준어를 확장하기보다 그것을 보급하는 데에 더 큰 목표가 두어져 있었다. 물론 이 운동에 동참한 많은 조사원들도 이에 동조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 함평 지역의 조사원 ‘李康壽’의 다음 진술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sup>9)</sup>

서울말과 우리 지방 사투리와 뜻은 같으면서 말이 다른 것을 찾으며 모으며 하여 오던바, 함평에 계신 분으로써 서울말을 이해치 못하시는 이가 있다 하면 도움이 될까 하여(《한글》 32, 1936.3)

하지만 방언 수집의 목적을, 언어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이나 지방 언어 문화의 보존에 두었던 조사원도 상당수 있었던 모양이다.

9) 이처럼 일부 조사원들은, 자료 제시에 앞서 짧은 진술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 진술 속에는 방언 수집의 과정이나 목표 등 당시의 정황을 알려 주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蔡大源’의 〈시골말〉(평남 용강): 우리 지방의 사투리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 한글 연구하시는 여러분 앞에 소개하여서 다소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한글》  
 48, 1937.9)

‘楊元和’의 〈시골말〉(황해 송화·은율): 사투리 가운데에 가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되는 바를 오히려 만족하게 그려낼 수 있는 묘하고 아름다운 말이 적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바이다.(《한글》 44, 1937.4)

이는 조선어학회의 방언 채집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현배  
 (1894~1970)가 작성·간행한 《시골말 캐기 잡책》(1936)의<sup>10)</sup> 〈머리말〉과도  
 부합하는 진술이다.

배달말의 연구에 뜻하는 이, 또 일반으로 한국을 알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  
 을 하여 봄이 크게 소용될 줄로 믿는다. … 시골말 캐기(방언 채집)는 다만 배달말  
 및 배달 문화의 전공자에게만 필요할 뿐 아니라 … 말씨 문화에 대한 자기 인식의  
 깊히기와 여물구기에 매우 유조할 줄로 믿는 바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평북 벽동 지역의 〈시골말〉을 보고한 ‘張至用’은 사투  
 리에 관한 한 남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이 난을 서로 서로 이용하여, 독자 여러분의 지방 사투리를 좀 알려 주시오, 조  
 선 사람으로서 조선말을 모른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의 성명까지 알지 못하게  
 된 정신병자(미치광이)와 같다.(《한글》 39, 1936. 11)

민족 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어의 통일이 강력히 요청되던  
 시기에 독특하게도 그는, 모든 사투리를 다 포괄해 “조선말”(=한국어)로 규

10) 이 책은 방언 채집 운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만든 (질문문이 없는) 약식  
 조사 질문지다. 이는 ‘천문·지리, 동물·식물’에서 ‘음성편’과 ‘어법편’에 이르기  
 까지 단어나 어구, 문장 등 1,000개가량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성사범학교  
 ‘조선어 연구부’의 학생 부원들은 이 질문지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여 전국 방언  
 조사(전국 68개 군)를 실시하고 이를 정리해 《방언집》(1937)을 간행하였다. 아  
 울러 《한글》에 실린 ‘金麗珍’의 〈시골말〉(함북 길주, 1938. 3)이나 ‘崔金鎔’의  
 〈시골말〉(평북 의주, 1939. 8)도 이 질문지를 직접 활용한 조사·보고라 할 수 있  
 다.



정하고 민족 소통의 전제로 사투리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족 정체성 확립의 차원에서 사투리의 가치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진, 사투리의 소멸을 염려하는 단계에 이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IV. 동아일보사의 ‘방언 채집’

동아일보사에서는 1962년 여름부터, 우리의 고유 문화재를 채집·발굴하여 소개하는 범국민 운동을 펼쳤다. 《동아일보》(1962년 7월 16일)에 다음과 같은 社告를 싣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화재 도로 찾기 운동’을 벌인 것이다.

오래 전부터 本社에서는 잃어버린 우리 고유 문화재의 ‘도로 찾기, 채집, 발굴’ 운동을 구상 ... 우리 고유문화의 전통과 그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므로 이 민족의 잃어버린 정서, 문혀 있는 문화와 민속 및 예술을 도로 찾고 채집하고 발굴하여 널리 紙上을 통해 소개 ... 독자 제현께서는 각기 우리의 주변에 흩어져 문혀 있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재 도로 찾기 운동’의 선봉에 나서 ‘채집, 발굴’하여 많은 투고 있기를 바랍니다.(〈범국민 ‘문화재 도로 찾기 운동’ 전개〉)

이 운동에서는 독자들로부터 ‘내방 가사(영남 지방 중심), 판소리(호남 지방 중심), 민요, 신화·전설·민담, 민속 및 민간 신앙, 방언·은어, 유훈·유머, 고서 및 골동품(이상 전국)’ 등에 관한 원고 또는 사진을 받아, 정해진 날의 《동아일보》에 전부 한데 모아 게재하였다. 말하자면 독자 투고의 형식을 빌려,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 또는 문화재에 대한 채집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리하여 1962년 8월 6일에서 1963년 2월 27일까지, 신문 지상을 통해 총 15차례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중 9회에 걸쳐 이 운동의 일환으로 ‘방언 채집’이 이루어졌다. 채집된 방언은, 가나다순으로 배열된 사투리 표제어 밑에 ‘대응 표준어’(간혹 ‘뜻풀이’)를 붙여 발표되었다(〈사진 3〉 참조).



〈사진 3〉 ‘이원’ 방언(1962. 9. 17.)

다음 표에서 보듯 동아일보의 ‘방언 채집’은 투고자(4명)도 매우 적고 지역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부록 3에 《동아일보》의 〈방언·은어 채집〉 전문 수록). 물론 이는 동아일보의 ‘문화재 도로 찾기 운동’이 조기 종료된 데 따른 결과였다.<sup>11)</sup>

11) 이 운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이유가 신문 지상에 밝혀져 있지 않다. 아마도 이는, 1963년의 급박했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공화당 창당(1월 18일), 박정희 최고위원장의 ‘민정 불참 선거식’(2월 27일) 그리고 쿠데타 음모 사건(3월 11일)에서부터 박정희 의장의 전역과 공화당 입당 및 대통령 후보 지명(8월 31일) 그리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10월 15일)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시의 신문사들이 내적·외적으로 ‘방언 채집’과 같은 문화 운동을 벌일 여유가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당시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국가적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간지의 ‘독자 투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했다.

| 회차(날짜)      | 지역      | 투고자                | 참고               |
|-------------|---------|--------------------|------------------|
| 제1회(8/6)    | 함남 단천 ① | 全泰樹 <sup>12)</sup> | 崔瑛植이 투고한 ‘은어’ 수록 |
| 제2회(8/13)   | 함남 단천 ② | 全泰樹                |                  |
| 제3회(8/23)   |         |                    | 방언 채집 없음         |
| 제4회(9/3)    | 함남 단천 ③ | 全泰樹                |                  |
| 제5회(9/10)   |         |                    | 방언 채집 없음         |
| 제6회(9/17)   | 함남 이원 ① | 尹熙聲                |                  |
| 제7회(9/24)   | 함남 이원 ② | 尹熙聲                |                  |
| 제8회(10/2)   |         |                    | 방언 채집 없음         |
| 제9회(10/17)  | 함남 고원 ① | 趙創玉                |                  |
| 제10회(10/23) | 함남 고원 ② | 趙創玉                |                  |
| 제11회(11/14) |         |                    | 방언 채집 없음         |
| 제12회(11/21) |         |                    | 방언 채집 없음         |
| 제13회(1/30)  | 경남 거제 ① | 李柱泰                |                  |
| 제14회(2/11)  | 경남 거제 ② | 李柱泰                |                  |
| 제15회(2/27)  |         |                    | 방언 채집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의 ‘방언 채집 운동’은, 이전의 방언 채집 운동과 달리 표준어에 의한 “방언의 말살”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운동의 방향을 명시한, 康允浩(이화여대 교수)의 〈방언·은어 채집 운동에 부쳐〉란 글을 보자.

우리들은 좁은 각 지역어 곧 방언의 통용 범위를 극복하고, 온 국내에서 널리 통용할 수 있는 공통어(이른바 표준어)를 제정 ... 그러나 공통어의 통용 범위가 증대된다고 해서 우리 주위에서 방언의 말살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채집될 방언 어휘는 우리의 손으로 실현되어야 할 ‘방언사전’ 또는 ‘방언집’ 편찬을 갈망하고 있는 국어학계에 큰 보탬이 될 것(《동아일보》 1962. 7. 31.)

12) 제1회(8/6) 때는 ‘金泰樹’로 되어 있으나 제2회(8/13)와 제4회(9/3)의 투고자와 동일한 인물이므로 여기서는 ‘全泰樹’로 수정하였다.

표준어의 보급 및 통용이 방언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언사전의 간행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전국적인 방언 채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로소, 앞으로 닥쳐 올 방언의 소멸 위기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제3공화국의 출범(1963년 12월) 이후, 국가 주도의 강력한 표준어 교육 및 보급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의견들은 사장되고 사투리는 급격한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 참고문헌

- 곽충구(1997), 국어사전의 방언 표제어와 그 주석에 대한 검토, 《국어교육》 93, 129-156.
- 곽충구(2007), 방언의 사전적 수용, 《국어국문학》 147, 193-219.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도경(2012), 표준어의 이념과 ‘사투리’의 탄생 - 1920년대 문학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 《어문학》 117, 339-369.
- 김홍순(2011), 인구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도시화 성격: 일제 강점기와 그 전후 시기의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2, 19-45.
- 심초희(2010), 『한글』 소재 방언 연구, 석사논문(경남대 교육대학원).
- 이관규(2011), 표준어 교육의 실태와 방향,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21-35.
- 이병근 외(2005),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출판부.
- 이병근 외(2007),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출판부.
- 임진아(2011), 『한글』지 소재 방언 연구, 석사논문(경남대).
- 정승철(2007), 일제강점기의 언어 정책,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이병근 외), 서울대출판부, 69-93.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승철(2014), 한국 방언 자료집 편찬의 역사,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7-35.
- 정승철(2015), 조선어학회와 『신민』, 《관악어문연구》 40, 21-42.
- 정진석(2014), 《한국 잡지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4), 《한국방언자료집》.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허재영(2004), 근대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계몽 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 13, 577-605.
- 眞田信治(2001), 《標準語の成立事情》, PHP研究所.

[부록 1] 《매일신보》의 〈사투리〉 목록 및 전문<sup>13)</sup>

| 날짜(1931년) | 투고자  | 지역                    |
|-----------|------|-----------------------|
| 9월 19일    | 金一峰  | 함북 성진                 |
| 9월 22일    | 呂○스生 | 전북 전주                 |
| 9월 23일    | 高尼流  | 경남 부산                 |
| 9월 24일    | 高尼流  | 경남 부산                 |
| 9월 25일    | 高尼流  | 경남 부산                 |
| 9월 26일    | 韓泰鳳  | 함북 회령                 |
| 9월 29일    | 李興石  | 경기 강화                 |
|           | 崔正厚  | 경남                    |
| 9월 30일    | 高尼流  | 경남 부산/울산/양산/밀양, 경북 대구 |
| 10월 3일    | 金泰元  | 경북 안동                 |
| 10월 4일    | 遙浪兒  | 함남 원산                 |
| 10월 6일    | 朴大童  | 함북 길주                 |
| 10월 7일    | 高尼流  | 경남 부산                 |
| 10월 8일    | 朴大童  | 함북 길주                 |
| 10월 9일    | 不明   | 함남 함흥                 |
| 10월 10일   | 高尼流  | 경남 부산                 |
| 10월 13일   | 桂樹   | 평북 선천                 |
| 10월 15일   | 崔士愚  | 전남 보성                 |
| 10월 16일   | 朴尙萬  | 경북 선산                 |
|           | 桂潤集  | 평북 선천                 |
| 10월 17일   | 桂樹   | 평북 선천                 |
| 10월 20일   | 盧雲溪  | 함남 삼수                 |
| 10월 21일   | 金日影  | 함남 북청                 |

13) ‘뫏폴이’나 ‘오자’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표기하고자 하였다. 다만, 원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경음 표기(‘시, ㅅ, ㅅㅅ, ㅅㅅ’ → ‘ㅅ, ㅅ, ㅅㅅ, ㅅㅅ’),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는 현행 규정에 맞추어 약간 수정하였다(관독이 어려운 글자는 ‘●’로 표시).

| 날짜(1931년) | 투고자 | 지역     |
|-----------|-----|--------|
| 10월 22일   | 朴德順 | 함북 각지  |
| 10월 23일   | 朴德順 | 함북 각지  |
| 10월 24일   | 朴尙萬 | 경북 선산  |
| 10월 29일   | 辛三咲 | 전북 줄포  |
| 10월 30일   | 崇崖  | 함남 원산  |
| 10월 31일   | 桂潤集 | 평북 선천  |
| 11월 3일    | 李草笛 | 황해 검이포 |
| 11월 5일    | 崔永漢 | 경남 마산  |
| 11월 6일    | 韓春惠 | 함남 함흥  |
| 11월 7일    | 盧雲溪 | 함남 삼수  |
| 11월 8일    | 李草笛 | 황해 검이포 |
| 11월 10일   | 韓春惠 | 함남 함흥  |
| 11월 11일   | 韓春惠 | 함남 함흥  |
| 11월 12일   | 高尼流 | 경남 부산  |
| 11월 14일   | 朴德順 | 함북 부령  |
| 11월 20일   | 高尼流 | 경남 동래  |

(1) 9월 19일: 함북 성진(金一峰 寄)

- 애기마누: 애호박
- 갱개: 감자
- 클아배: 할아버지
- 소재: 효자(孝子)
- 부숫땡기: 부지깥이
- 노덕: 마누라
- 체내: 아가씨
- 제마: 어머니
- 큰아매: 할머니
- 랫랫슴메?: 그랫습니까
- 부숫개: 아궁이
- 생원님: 시아즈버님
- 에미네: 녀편네

(2) 9월 22일: 전북 전주(呂○스生 寄)

- 라우: 습니다 〈例〉 내가 그랫서라우

- 항!: ‘암!’ 하는 소리                      ○ 애!: ‘네!’ 하는 소리
- ‘파’를 ‘포’라고 發音하니 〈例〉 풋(小豆), 포리(파리), 폴둑(팔둑), 풋죽(팥죽)
- ‘기’를 ‘지’라고 發音하니 〈例〉 지와(瓦), 자다(長), 짐치(김치), 집웃(겉웃)  
‘한글’ 중에 ‘다, 님’ 줄을 ‘다, 자, 더, 저’라고 읽고 ‘나’줄을, ‘아’줄을  
을 各各 그렇게 읽습니다.
- 택네: 택네, 夫人의 존칭  
그밖에도 單語로 말하면 無數하지만 一一히 쓸 수 없고 또 내가 서술  
말을 잘 모르는 以上, 더 모릅니다. 代表的 몇 가지만 들면
- 마루깡, 마룻: 마루                      ○ 산낙기: 새기
- 부석: 부엌                                  ○ 솔나무: 소나무
- 고동: 소라

### (3) 9월 23일: 경남 부산(高尼流 寄)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慶尙道 地方 ‘사투리’와 咸鏡道 地方 ‘사투리’와 갇튼 것이 大略 잇슴을 미리 말해 둡니다. 역사상으로 傳해 오는 것과 가티 李朝 成宗 때에 慶尙道人이 咸鏡道 地方에 만히 移住한 까닭인가 합니다. 그러나 發音하는 데 다른 點이 잇는데 卽 ‘엑센트’입니다. 慶尙道人의 말하는 데는 ‘엑센트’가 업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닙니다.<sup>14)</sup> 그지 하는 말이 ‘순순’하고 ‘平平’합니다.

〈註〉 글자와 글자 사이에 ‘-’표가 잇슬 때에 조금 길게 發音하시오.

- 할배: 할아버지                      ○ 할매: 할머니
- 아배: 아버지                      ○ 오매: 어머니
- 큰아배: 큰아버지                      ○ 큰오매: 큰어머니
- 자근아배: 아재씨                      ○ 자근오매: 아즈마니
- 생이: 형님                              ○ 누부: 누님
- 오래비: 옴바                      ○ 동생이: 아오, 동생

14) 보고자가 부산 사람이므로, 함경도에 비해 경상도의 악센트가 약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림: 식아즈버님
- 고무: 고모
- 씨어반이: 식아버지
- 천이: 아가씨
- 조개: 족하
- 영감땅구: 늙은 영감
- 매누리: 며누리
- 씨어만이: 식어머니
- 새대기: 새악씨
- 첩산이: 첩
- 중신애비: 남자 중매인
- 할망땅구: 늙은 할멈

(4) 9월 24일: 경남 부산(高尼流 寄)

- 까마구: 가마귀
- 땅나구: 당나귀
- 뻐가리: 병아리
- 뱀이: 배암
- 쪽제비: 족제비
- 무씨: 무
- 강냉이: 옥수수
- 대-지: 도야지
- 남생이: 염소
- 버부리: 병어리
- 결뱅이: 거지
- 문딩이: 문둥이
- 개쭈치: 호주머니
- 대지비: 대접
- 강지리: 광주리
- 가새: 가위
- 국시: 국수
- 백굼새: 부엉새
- 솔갱이: 소리개
- 옷배미: 올배미
- 짜: 쥐
- 꼬치까리: 고초가루
- 밀가리: 밀스가루
- 고구매: 고구마
- 토간이: 툇기
- 애옹개: 고양이
- 먹부: 귀먹어리
- 쟁탕이: 바보, 멍탕구리
- 쭈치: 주머니
- 박앗치: 박아지
- 바굼지: 바구미
- 색경: 거울
- 사분: 비누
- 영장: 송장

(5) 9월 25일: 경남 부산(高尼流 寄)

- 동두깨미: 솟곱질
- 빗자리: 빗자루
- 송금딱곰: 솜박곱질
- 주묵: 주먹

- 자인구: 자던차
- 고반소: 파줄소
- 포수: 산양꾼
- 겨울: 겨울
- 마구초: 갑에 든 담배
- 와 그라노: 왜 그리오
- 여개: 여괴
- 지리가 펍 질다: 길이가 펍 길다
- 알나 땃고 오나라: 애기 다리고 오너라
- 야 보소: 이에 보시오
- 야들아 싯거럽다: 이애들아 싯그럽다
- 뽕생이: 뽕이
- 원썩이: 원숭이
- 처내: 남도 부인네들이 머리에 쓰는 것
- 가매: 가마
- 나락: 벼
- 구산: 귀신
- 비개: 벼개
- 마리, 칭: 마루
- 까막소: 형무소
- 일력구: 인력거
- 통시간: 변소
- 가홀: 가을
- 청이: 키
- 치매: 치마
- 달●뺨다: 도망한다
- 저개: 저괴

(6) 9월 26일: 함북 회령(韓泰鳳 寄)

- 디괘: 집괘이(杖)
- 개시그릇: 식괴(食器)
- 재양교: 자전거(自轉車)
- 골노사: 고무신
- 광자: 바구니
- 둥자: 둥이(巢)
- 개안물: 사내물
- 억달이 세다: 억세다
- 꺾지: 광이(廣茸)
- 색경: 거울(面鏡)
- 포리: 파리(蠅)
- 꺼렁배: 거지(乞人)
- ●●: 흙(土)
- 부술괴: 기차(汽車)
- 놀가지: 노루(鹿)
- 머구락자: 개고리(蛙)
- 췌: 소(牛)
- 모새부리: 모래사장
- 소곰재: 잠자리
- 묵기: 무(大根)
- 배알이: 뽕이
- 보름: 바람(風)

- 폴땡이: 팔뚝이(腕)
- 벌거지: 버래(虫)
- 구렁물: 우물(井水)
- 저막이: 두루마기
- 노친네: 늙은이(老人)
- 낱팍: 흰밥
- 성남: 형님(兄)
- 화리: 화로(火爐)
- 영거게: 여귀
- 좁팍: 조밥
- 꿩: 꿩(雉)
- 내굴: 연기(煙氣)
- 어디를 가압씨겻씀등: 어대로 가시겻습닛가
- 오늘은 무세 칩다: 오날은 대단이 칩다
- 얼마나 주고 샷소: 얼마나 주고 샷소
- 가당갯씀등: 가지 안갯습닛가
- 이썸 좀 괜탄읍썸등: 요사히 좀 나으십닛가
- 그 지 물이 참 조쓰꼬마: 그 집 말(馬)이 참 좇습니다
- 괴구한 즈슬 한다: 알곳은 짓을 한다
- 문주야나 마러라: 떠들지 마러라
- 가압씨겻씀등: 가시겻습닛가
- 제엄아: 어머니
- 낭괴: 나무(木)
- 삼칫물: 새암물(泉)
- 머커리: 미투리
- 우티: 의복(衣服)
- 측간: 뒷간
- 술괴: 수레(車)
- 사실: 이약이
- 경거게: 거귀
- 생객: 생각
- 덩거갯: 저귀

〈註〉 以上은 北部 地方이 村內에서 흔히 行用하는 사투리입니다.

(7) 9월 29일

▶ 경남(崔正厚 寄)

- 道와 府郡을 明記하시오.
- 꼴더람이: 귀스드람이
- 빨가리: 병아리
- 개꾸리: 잠자리
- 소꾸리: 향아리
- 강생이: 강아지
- 왓는개: 왓서요

- 왓지더: 오섯지요
- 노리: 노루
- 쉬: 소
- 뜰뜰리: 도야지
- 따시다: 땃땃하다
- ▶ 경기 강화(李興石 寄)
- 어메-이: 어머니
- 각구엇다: 심엇다
- 맥기: 색기
- 짜다라: 만히
- 암생이: 염소
- 토강이: 토기
- 묵어라: 먹어라
- 알굿다: 이상하다
- 그랫씨다: 그랫습니다
- 고기입잡: 낙시밥

(8) 9월 30일: 경남 부산/울산/양산/밀양, 경북 대구(高尼流 寄)

- ▶ 경남 부산
- 심심한대 이바구 한 자리 해라: 궁금한데 이약이 한 자루 하여라
- 잡바젓다, 업퍼젓다: 너머젓다
- 각씨 섬 보러 가자: 새악시 관상(觀相) 보러 가자
- 또 그랄내 안 그랄내: 다시 그리겟니, 안 그리겟니
- 니 좃까: 너 줄가
- 와 왓노: 왜 왔나
- 칭개다라: 층층대(階段)
- 이저와 저저인 ●가: 이것과 저것은 달나
- 낭개서 새가, 널젓다: 나무에서 새가 떠러젓다
- 낫부다 넷빠리라: 더럽다 내버리라
- 열매요: 열마요
- 방구덜 꺼진다 분탕지기 하지 마라: 방구들 내리안는다 갈●질 하지 마러라
- 잇숯구마: 잇습니다
- 어대 갓소구마: 어되 갓습니다
- 갓다 오마 하드마: 단여오시겟다 합디다
- ▶ 경남 울산/양산
- 머리깁다: 경친다
- 와 가노: 왜 가나
- 엽숯구마: 엽습니다
- 그래 핫소구마: 그리 하십시오

- 엽구매: 엽소
- 잇구매: 잇소
- 갓구매: 갓소
- 오구매: 읍니다
- ▶ 경남 밀양
- 엽드매: 엽습되다
- 잇드매: 잇습되다
- 하드매: 합되다
- 가드매: 갑되다
- ▶ 경북 대구
- 수군: 수건
- 쌀꼬방: 정미소(精米所)
- 고방: 창고
- 가게: 점(小店)
- 채부: 우편배달부
- 이 문둥아 어대 갓드노: 이 말은 慶北 大邱 地方의 부인네들이 하는 말인데 길거리에서 반가운 친구를 만날 때 하는 말
- 기정 갈내: 구정 갈나니
- 걸웅에 서답 씻거러: 시내에 빨내 씻츠러
- 한질가: 네거리
- 한복판: 한가운데
- 보재가: 잠녀(潛女)
- 금까락지: 금반지
- 손까락: 손구락

(9) 10월 3일: 경북 안동(金泰元 寄)

- 할배: 할아버지
- 할매: 할머니
- 아배: 아버지
- 어매: 어머니
- 아: 아해
- 얼아: 어린아해
- 색시, 처자, 가신아: 처녀
- 쇠: 소
- 쌍지: 소아지
- 염쇠: 염소
- 특구, 특갱이: 특기
- 노리, 놀갱이: 노루
- 고내기, 께내기, 께, 광진이, 과내기: 고양이
- 노구지리: 종달새
- 소래기, 술뱅이, 술개: 소리개
- 뽕궁새, 뿌경이: 벉국새
- 벌거지, 벌기: 벌어지
- 파랭이: 파리
- 모갱이: 모기
- ●갱이: 지렁이
- 할누대: 할미꽃

- 복상꽃: 복송아꽃
- 꿩: 고기
- 서숙: 조
- 녹디: 록두
- 거렁: 시내
- 방구, 방우: 바위
- 물개: 모래
- 아직, 아참: 이층
- 지넉: 저녁
- 지림: 기름
- 왓늬스겨: 오셨습니까
- 가시늬스겨: 가십니까
- 날내 가소: 어서 가십시오
- 가시더: 갑시다
- 안 대늬더: 아니 됩니다
- 황글내: 오얏
- 나락: 벼
- 지장: 기장
- 잘: 길
- 갱변: 강변
- 돌미, 돌맹이: 돌
- 벨: 별
- 정슴, 정삼: 점심
- 걸금: 거름
- 걸어시, 걸뱅이, 걸버시: 거지
- 갓늬스겨: 갓습니까
- 날내 오소: 어서 오십시오
- 자시더: 잡시다
- 되늬더: 됩니다
- 불을 썰라: 불을 켜라

(10) 10월 4일: 함남 원산(遙浪兒)

- 할마이: 할머니
- 큰어미: 큰어머니
- 짜리: 안즌방이
- 쟁고: 자전거
- 떼떼바리: 반병어리
- 사괘: 사과
- 고냉이: 고양이
- 새도랭이: 까부는 것
- 입팍: 이●
- 땡개자: 고초
- 여보다: 여보시요
- 이리 오우다: 이리로 오십시오
- 큰애비: 큰아버지
- 아재비: 외삼촌 혹은 저구아버지
- 버버리: 병어리
- 떡짜구: 바보
- 무꾸: 무
- 다라치: 다라끼
- 개지: 강아지
- 거룻방이: 거지
- 가매: 가파
- 정엣간: 변소
- 쉼퀴막질: 숨박꼭질
- 왜 그루다: 왜 그러니까

## (11) 10월 6일: 함북 길주(朴大童 寄)

- 우매: 할머니                      ○ 아배: 백부
- 내성: 형님                         ○ 간나: 계집아
- 에미나: 처녀                      ○ 스나: 남편
- 선스나: 머슴아                   ○ 아주머니: 숙부
- 아주머니: 고모부               ○ 아주머니: 이모부
- 자란아: 어른                    ○ 액기: 여우
- 췌지: 송아지                      ○ 매지: 망아지
- 개지: 강아지                      ○ 도투: 도야지
- 누피: 연못                        ○ 광창위: 삼
- 목팔: 연필                        ○ 간다시: 연필
- 멀귀: 머루                        ○ 나딕: 조
- 우로래: 우리 동리               ○ 뒤주: 두지
- 활●: 화로                        ○ 폴메독이: 뱃장이
- 안즐●이: 썰매                   ○ ●지: 표주박
- 닭수리: 술개                      ○ 수절: 수저
- 구새: 굴뚝                        ○ 잇슴메?: 잇습넋가
- 가겻슴메?: 가겻습넋가

## (12) 10월 7일: 경남 부산(高尼流 寄)

- 새기새기, 얼는얼는: 빨니빨니   ○ 깨목자: 깨트려 먹자
- 사흙: 싸흙                        ○ 사운다: 싸온다
- 댕간: 수되(水道)               ○ 새매, 새미: 우물(井)
- 자분다: 조은다(睡)            ○ 도도통: 절구통
- 도긋때: 절구쟁이               ○ 독구: 독기(釜)
- 꿀개벼: 누렁지 굵는 것       ○ 수시: 수수
- 갱자리: 잠자리                   ○ 흘: 흙
- 살: 쌀                            ○ 버슴: 버섯
- 말시망이: 곡마단(曲馬團)   ○ 셋통: 잠을쇠

- 셋때: 열쇠
- 허리끈: 허리띠(腰帶)
- 문지: 문지(塵)
- 무슨 일 하노: 무슨 일 하니
- 서사질 하요: 서귀 노릇 합니다 〈例〉 순사질, 목사질, 양반질, 선생질  
이러케 名詞 밋테 ‘질’을 부쳐 말하니 상소리(辱) 가트나 方言에 行用  
語이다.
- 뚜루박: 물 길느는 것  
咸鏡道 ‘사투리’와 가튼 것을 적어 봄시다.
- 색경: 겨울
- 열매 주고 싹소: 얼마나 주고 싹소
- 성님: 형님
- 화마: 화로(火爐)
- 측간: 뒷간
- 포리: 파리
- 쇠: 소
- 사실: 이약이
- 머커리: 미투리(鞋)
- 꿩: 꿩(雉)
- 붓숫개: 아궁
- 부숫쟁이: 부짓쟁이

(13) 10월 8일: 함북 길주(朴大童 寄)

- 쪽여 주어라: 때려 주어라
- 산딴떡: 찰떡
- 놀개친다: 놀인다
- 내기성: 내기
- 행가●: 한나제
- 땡거치: 삼베(麻布)
- 비지깨: 석냥
- 닷새같이: 이 정보(二 町步)
- 명살: 명절
- 붓가: 거짓말
- 숭양: 늑대(狼)
- 살과 주어: 살려 주어
- 귀통: 뺨
- 세치내: 송사리
- 재비: 적은 배
- 찬: 적은 배
- 쇠첩: 접시
- 부랑귀: 대로
- 잘물: 국
- 지령: 간장
- 소삼: 술입
- 하부개: 훗것
- 솜웃퉁: 솜옷
- 다듬이때: 흥두께
- 꼴독: 가득히
- 복●: 복송아
- 촌 안간: 촌 부인
- 팩기: 팻



- 떡무치개: 떡고물
- 골이 압혀: 머리 압혀서
- 꼬독꼬독: 오오오오
- 오금: 단익
- 검정이검정이: 둘둘둘
- 밥석거 죽석거: 밥이나 죽이나

(14) 10월 9일: 함남 함흥(寄稿者 姓名 不明)

- 아바이: 할아버지
- 시에바: 시아버지
- 아즈바이: 三寸叔
- 가매: 솿
- 살궁: 찬장
- 뽕비: 설합
- 등기: 물독
- 독구: 돛자리
- 북깨뛰비: 주발뚜껑
- 채: 채
- 가리장: 고치장
- 국택이: 떡국
- 장물: 국
- 이거 볍세: 이것 보시요
- 안소세: 안즈시요
- 아이 그러겟소: 안 그러겟습니까
- 갑세: 가시지요
- 이 간나: 이년
- 고애: 고양이
- 이꺄이: ●지
- 복장: 된장
- 가람메: 갈까요
- 행생애: 상여
- 쇠경: 장님
- 아파이: 할머니
- 오래비: 오라버님
- 애미: 아씨
- 동가매: 적은 솿
- 가매뛰비: 솿뚜껑
- 로고리: 반찬광
- 생지: 행주
- 북국떼기: 고물개
- 화리동: 화루
- 껌여이: 냄비
- 뜰이: 비지
- 땡게지: 고춧가루
- 닛조매: 단님
- 엇제 이라: 왜 이래
- 부나하다: 식그럽다
- 이케이: 차네
- 이 간나 색가: 이녀석
- 개구락지: 개고리
- 버버리: 병어리
- 술기: 구루마
- 슴드깨고: 슴박꼭질
- 공경매: 바지랑매
- 집항목: 신 버서 낫는 데

- 찜에간: 변소
- 정지: 안방
- 묵구: 무
- 썩취: 못난이
- 뒤우란: 뒤꼍
- 엉더리: 궁텨이

(15) 10월 10일: 경남 부산(高尼流 寄)

- 딸내미: 딸아히
- 지람: 기름
- 순금: 순사
- 문찌방: 문턱
- 개기: 고기
- 거무: 거미
- 모구: 모기
- 서답 췌그러 갓소: 빨내 빨러 갓습니다
- 머슴아: 사나희
- 기상: 기생
- 물와: 오이
- 종오: 조희
- 갱바깨이: 갱과리
- 배룩: 벼룩

(16) 10월 13일: 평북 선천(桂樹<sup>15</sup> 寄)

- 색갓: 산(山)
- 걸시 오나: 빨니 오나
- 엄물: 井
- 서답잘: 빨내
- 님빠디: 이
- 삼보: 학생 모자
- 돌메기: 주의
- 널군길: 널븐 길
- 참사이: 참새
- 되지: 도야지
- 폭 다 갓습니다: 모다 갓습니다
- 여우: 여호
- 흑●되다: 펍 만타
- 돌멩이: 돌
- 구지: 구두
- 쟁고: 自轉車
- 덩그당: 汽車 서는 곳

(17) 10월 15일: 전남 보성(崔土愚)

- 속해: 숨
- 서리쌀: 해쌀

---

15) 이 ‘계수(桂樹)’와 뒤(10월 16일의 보고자)의 ‘계윤집(桂潤集)’은, 그 지역이 같고 조사 항목도 겹치지 않으므로 틀림없이 동일 인물이다.

- 옷가슴: 옷감
- 지: 김치
- 왓서라우: 오섯서요
- 가사내: 계집애
- 도구통: 절구통
- 군지: 그네
- 붓등: 붓드막
- 간지대: 바지랑대
- 소매: 오줌
- 따습다: 더웁다
- 복다: 밝다
- 돈방이: 저고리
- 무시: 무
- 서숙: 조
- 삼공: 탁자
- 방죽: 연못
- 가락춤: 가래춤
- 부순박: 아래목
- 내 말이요: 여보시요
- 투렌박: 두레박
- 머스매: 사내아히
- 도구대: 절구●이
- 정지: 부억
- 부삭: 아궁이
- 치간: 변소
- 각금: 동산
- 자쪽: 자
- 우새: 창피
- 다룻케: 다시
- 가스개: 가위
- 청이: 키
- 굿: 구경
- 미영: 면화

(18) 10월 16일

▶ 경북 선산(朴尙萬 寄)

- 차마다: 어엿부다
- 수리치기: 수수깍기
- 밀창: 미다지
- 어매: 어머니
- 할매: 할머니
- 내-미: 냄새
- 누우: 누님
- 군디: 鞦韆
- 도분: 憤
- 싯집 먹었다: 욕 보았다
- 돼-지: 도야지
- 아배, 아부재: 아버지
- 할배: 하라버지
- 여시: 여호
- 마살: 마을
- 무시: 무
- 우시개: 弄談
- 아재: 叔父

- 아지매: 叔母
- 머스마: 男兒
- 모간자: 顰
- 찬타: 관계치 안타
- 날: 忌日
- 핑북 선천(桂潤集)
- 땡가자: 高 초
- 어드메 감마?: 에데 가는가 〈例〉 普通은 손아래 사람에게 쓰는 말
- 님세: 당신 혹은 자네
- 난이 낫다: 전쟁이 낫다
- 뉘: 누나
- 마-시!: 말어라 〈例〉 걱정마-시! 또는 겁내지 마-시?
- 종의: 紙
- 낸: 女人
- 걸시 오시?: 얼른 오게
- 손꼭락: 손가락(指)
- 색씨: 處女
- 말광대: 曲馬團
- 부석: 부엌
- 미: 墓
- 민 감자: 목욕하자
- 초메가 달다: 치마가 짧으오
- 오래비: 옴바
- 화룡선: 汽船
- 흑게 만타: 대단히 만타
- 버르디: 벼룩

(19) 10월 17일: 핑북 선천(桂樹)

- 돌과우: 바위
- 구먹댕이: 귀먹어리
- 돌가지: 도라지
- 언나: 아기
- 개지: 개
- 광이: 고양이
- 빼아리: 병아리
- 누겔넛치: 거지
- 다리갱이: 다리(足)
- 참사이: 참새
- 평상: 마루
- 톱광이: 톱기
- 강애: 가위
- 다랭이, 다랑치: 다락기

(20) 10월 20일: 함남 삼수(盧雲溪)

- 배우-리: 병아리
- 무끼: 무
- 쇠: 소
- 남기: 나무

- |                 |                     |
|-----------------|---------------------|
| ○ 고내: 고양이       | ○ 비렁배: 거지           |
| ○ 거렁배: 거지       | ○ 썩취: 못난이           |
| ○ 머저리: 못난이      | ○ 아-덜: 아해들          |
| ○ 얼내: 어린아해      | ○ 췌-지: 송아지          |
| ○ 수리개: 소리개      | ○ 벌거지: 버레           |
| ○ 침시꽃: 진달네      | ○ 살귀꽃: 살구꽃          |
| ○ 모새: 모래        | ○ 물개: 모래            |
| ○ 지낙: 저녁        | ○ 물-도리: 마을도리        |
| ○ 그룹세: 그러케 하오   | ○ 주인 계시오다: 주인님 계십니까 |
| ○ 맬: 메밀         | ○ 매비: 매부            |
| ○ 매-지: 망아지      | ○ 죄게 쥐라: 때려 주어라     |
| ○ 복수애: 복숭아      | ○ 팩기: 팻             |
| ○ 선스나: 남자       | ○ 스나: 남편            |
| ○ 광차우: 삼        | ○ 화루똥이: 화로          |
| ○ 문자: 문지        | ○ 동가매: 적은 가마        |
| ○ 가매뜨배: 가마뚜껑    | ○ 생-지: 걸네           |
| ○ 다리매개: 단님      | ○ 보-롬: 바람           |
| ○ 그랫슴매: 그릇케 하엿소 | ○ 하얀 것: 흰 것         |
| ○ 물바: 물방아       | ○ 할나: 하나            |
| ○ 서이: 셋         | ○ 너이: 넷             |
| ○ 야들: 여덜        | ○ 얄: 열              |

(21) 10월 21일: 함남 북청(金日影 寄)

- |           |           |
|-----------|-----------|
| ○ 저란: 게란  | ○ 비내: 비녀  |
| ○ 등경: 등불  | ○ 측슬: 뒤간  |
| ○ 서답: 빨내  | ○ 어미: 어머니 |
| ○ 애비: 아버지 | ○ 다로리: 다림 |
| ○ 활동이: 화로 | ○ 벌기: 버러지 |
| ○ 돌찌: 사쓰  |           |

(22) 10월 22일: 함북 각지(朴德順 寄)

1. 咸北에는 넷● 滿洲로부터 女眞族 侵入으로 말미아마 到處에 女眞  
語가 그대로 歸化語로 되고 만 것이 만타 합니다. 女眞語: 標準語.

- 새하마늪: 東西南北
- 쌍개: 구멍(穴)
- 구미: 나르(津)

2. 또 阿羅斯語가 朝鮮語 된 것이 있다.

- 거사라: 정거장
- 가는다시: 연필
- 비지개: 석냥
- 삭개: 모자

3. 支那語가 朝鮮語로 된 것

- 찬: 밭(●)
- 도로기: 가죽신

4. 下는 咸北 純● 사투리

- 폐렵다: 의상하다
- 실누: 참으로, 實로. 城津, 吉州, 明川 地方에서 만히 씀.
- 둥: 닳가
- 고마: 니다
- 자: 시오
- 보롱이: 바람
- 할가: 흙(土)

上은 흔히 富寧, 會寧 地方에서 씀.

- 배땡가: 배(腹)
- 귀땡: 귀(耳)
- 늦갈: 눈(目)
- 갈가: 가루(粉)
- 꺾지: 광의(廣耳)
- 게울: 거울(鏡)
- 망긴: 망건(網巾)

(23) 10월 23일: 함북 각지(朴德順 寄)

- 별거지: 벌어지
- 가딧: 갓
- 베리: 벼루
- 베리기: 벼룩
- 감지: 감주
- 냉가: 나무
- 사심이: 사슴
- 역가: 역호
- 놀가자: 노루
- 도매: 도마
- 구쭈: 구두
- 대지: 도야지

- |                 |                |
|-----------------|----------------|
| ○ 신누렀다: 노-라타    | ○ 여빈다: 여윈다     |
| ○ 염통: 염통        | ○ 오래비: 읍바      |
| ○ 더품: 거품        | ○ 거몽기: 거문고     |
| ○ 마사버린다: 깨트린다   | ○ 움부다: 우수웁다    |
| ○ 부숙개: 부엌       | ○ 복술기: 곶차      |
| ○ 이맨대기: 이마      | ○ 하리: 화로       |
| ○ 예줄이: 종달새      | ○ 궁기: 구멍       |
| ○ 터레기: 터리       | ○ 모두: 모나       |
| ○ 문지: 몬지        | ○ 묵까: 무        |
| ○ 바들물이: 바닷물(海水) | ○ 물색: 물감(染料)   |
| ○ 모른다: 알지 못한다   | ○ 팔주기: 팻죽(小豆粥) |

(24) 10월 24일: 경북 선산(朴尙萬 寄)

- |                    |             |
|--------------------|-------------|
| ○ 강생이: 강아지         | ○ 엇쌍이: 엇장시  |
| ○ 첨지: 노인           | ○ 자양구: 자전거  |
| ○ 대항구: 대포          | ○ 반두깨미: 솥굽질 |
| ○ 까랭이: 잠자리         | ○ 소개기: 쇠고기  |
| ○ 환 잘 친다: 그림 잘 그린다 | ○ 이인내: 여자   |
| ○ 제양 친다: 釋尊祭 지낸다   | ○ 히춘: 婦女 散步 |
| ○ 얼빱이: 곰보          | ○ 올가실: 올가을  |
| ○ 저을: 겨을           | ○ 달구리: 다리   |
| ○ 동무: 동모           | ○ 호랭이: 호랑이  |
| ○ 비내: 비너           | ○ 가매: 가마    |
| ○ 고당이: 소라          | ○ 수시: 수수    |
| ○ 버구미: 바구니         | ○ 구리: 구렁이   |
| ○ 뺨대기: 뺨           | ○ 올배야: 읍빠야  |
| ○ 깐치: 까치           | ○ 지지바: 게집아해 |
| ○ 통시: 뒷간           | ○ 쫓치기: 다름박질 |
| ○ 어더박시: 乞人         | ○ 애감: 蜜柑    |

(25) 10월 29일: 전북 줄포(辛三咲)

사람과 몸에 대한 말

- |                |                |
|----------------|----------------|
| ○ 대그뻘: 머리      | ○ 뒤통시: 뒷통수     |
| ○ 새비양꼬랭이: 귀밧털  | ○ 텍아리: 텍       |
| ○ 영지손꾸락: 엄지손가락 | ○ 허벅찌: 넓적다리    |
| ○ 웅지박: 귀밧      | ○ 이매뻘: 이마      |
| ○ 코뻘아: 코스잔등    | ○ 생끼손꾸락: 색기손가락 |
| ○ 백●: 배꼽       | ○ 조갑뻘: 무릅      |
| ○ 영지발꾸락: 큰발구락  | ○ 뒤꼭지: 뒷통수     |
| ○ 눈갈: 눈        | ○ 폴꿈박아: 팔뚝     |
| ○ 넓덕찌: 볼기      | ○ 불뚱개: 불알      |
| ○ 생끼발구락: 자근발가락 |                |

(26) 10월 30일: 함남 원산(崇崖 寄)

- |                 |                |
|-----------------|----------------|
| ○ 여보래: 여보게      | ○ 패준다: 때려준다    |
| ○ ●●엇다: 주지랍 드렸다 | ○ 옷타: 옷        |
| ○ 죽개: 달내는 말     | ○ 오시우다: 오십시오   |
| ○ 되지: 도야지       | ○ 게기: 강아지      |
| ○ 소금쟁이: 잔자리     | ○ 어머이: 어머니     |
| ○ 각쟁이: 갈퀴       | ○ 후루맥이: 두루맥이   |
| ○ 당추: 고초        | ○ 전: 지짐        |
| ○ 색시: 처녀        | ○ 각시: 신부       |
| ○ 지침: 기침        | ○ 수무대가리: 배추꼬랭이 |
| ○ 봉이: 부엌이       | ○ 거이: 게        |
| ○ 초매: 치마        | ○ 등지: 박우니      |
| ○ 솔낭구: 소나무      | ○ 사시우라: 사십시오   |
| ○ 간나야: 계집애      | ○ 읍부다: 우습다     |



(27) 10월 31일: 평북 선천(桂潤集 寄)

- 백: 부억
- 틱갑다: 더럽다
- 거늘: 그네
- 이무나: 處女
- 서나: 남자
- 모르가시오: 알지 못하겠습니까
- 계와집: 기와집
- 눅깔: 눈
- 귀스택이: 귀
- 님제: 자네 혹은 당신
- 턱납새: 첨하꽃
- 바람뚝: 벽
- 잣통: 뒷간
- 어드메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 모다구: 못(針)
- 색경: 거울
- 입성: 의복

(28) 11월 3일: 황해 겸이포(李草笛 寄)

- 몇자귀: 개고리
- 돼-지: 도야지
- 다가라: 솟
- 뒤지: 의롱
- 서답질: 빨내
- 댜정: 흙돌노 째 울타리
- 수태: 껍, 만히
- 주루마: 주시구려
- 췌-지: 송아지
- 개-지: 강아지
- 달구지: 수레
- 통세: 便所
- 바주: 울타리
- 빨니: 속히
- 우당: 일부러
- 구랑챙이: 골작이

(29) 11월 5일: 경남 마산(崔永漢 寄)

- 도긋대: 절구평이
- 통사: 뒷간
- 풋심: 학질
- 부석: 아궁이
- 씨미: 우물
- 공개: 광이
- 따뱅이: 또아리
- 호맹이: 호미
- 째댕이: 단임
- 행집푸: 행주
- 도긋통: 절구통
- 뛰장: 된장
- 포랭이: 파리
- 백-지불-노: 공연히

## (30) 11월 6일: 함남 함흥(韓春惠 寄)

- 나조: 저녁
- 얼의뿌지: 거짓말
- 동구박질: 손꼽노리
- 쟈기: 대문
- 아즈바이: 아저씨
- 아파아: 할머니
- 얼라: 어린애
- 쇠공: 소경
- 땡거지: 고초
- 봉애: 핏이
- 버버리: 병어리
- 뜨리: 비지
- 쟁양간: 변소
- 개-지: 강아지
- 수타다: 만타
- 나서라: 빗겨라
- 가슬: 가을
- 가갸슴메?: 가갸소?
- 새각시: 신부
- 사괘: 사과
- 숨우각지: 숨박꼭질
- 시●재꾼: 수수걱기
- 바당: 부엌
- 아재: 아저머니
- 아바이: 할아버지
- 고지박: 박
- 열-하다: 부끄럽다
- 봉재꽃: 봉선화
- 봉행: 부엌이
- 어딩이: 거지
- 보곰지: 바곰이
- 제맥이: 두루마기
- 쇠-지: 송아지
- 드베: 뚝경
- 무시기야: 무엇이야
- 놀기: 노루
- 가갸지예?: 가갸지요?
- 새스뱅: 신랑

## (31) 11월 7일: 함남 삼수(盧雲溪 寄)

- 선새미: 선생
- 그럿쏘이까: 그럿습니까
- 그러오다: 그럿습니다
- 아배, 아바이: 아버지
- 그래오다: 그럿습니다

‘오다’는 서울말에 ‘습니다’인데 ‘습니다’ 하는 말에는 ‘오다’ 하는 것이三水 地方에 通例인 사투리입니다.

- 칼아마이: 할머니
- 칼아바지: 할아버지
- 크-내미: 숙부
- 크-네미: 숙모

- 자그네미: 아즈머니                      ○ 자그네비: 아젓씨
- 서-어미: 형님                              ○ 누-어미: 누님
- 에미: 어머니                                ○ 핵교: 학교
- 아내: 마누라                                ○ 개-지: 강아지
- 아바이미: 식아버지                      ○ 처애: 아가씨
- 마: 모르오

모론단 말에는 ‘마-’라는 것이 三水 사투리.

- 쉬: 수수                                      ○ 괴기: 고기
- 가매: 가마                                  ○ 새애-기: 새악씨
- 구무기: 굴뚝

(32) 11월 8일: 황해 겸이포(李草笛)

- 당추: 고초                                      ○ 빨●: 설합
- 강냉이: 옥수수                              ○ 댐벽: 바람벽
- 깔넉이: 반디불                              ○ 싱교: 가마
- 흘뚝이: 필리                                ○ 속해: 숨
- 목래: 목도리

(33) 11월 10일: 함남 함흥(韓春惠)

- 썩●: ●충                                      ○ 햇당이: 햇다오
- 햇지비: 햇지                                ○ 나한이: 늑은이
- 아-들이: 애들이                            ○ 부지딱이: 부지깽이
- 디비: 두부                                    ○ 앵뒤: 앵두
- 해ㅅ바람: 휘파람                        ○ 쉬이: 수수
- 자부럼: 졸업                                ○ 빨쥐: 박쥐
- 송근다: 심근다                              ○ 질굼: 지름
- 무끼: 무                                      ○ 물외: 오이
- 늑: 연못                                      ○ 어저번: 이번
- 귀경: 구경                                    ○ 다쫓매: 대님

- 개앵이: 내
- 곱썰: 곱새
- 담바: 담배
- 질: 길
- 장물: 국
- 바재: 울타리
- 뱅자라: 병아리
- 소개: 솜
- 팩기: 팻
- 굴묵: 굴둑
- 우퇴: 의복
- 개오갯소: 가져오지 안엇소
- 일래오: 이리 주오
- ●-새: 싸게
- 귀먹썰: 귀먹어리
- 히로: 권연
- 저을: 겨을
- 지와: 기와
- 따바리: 또아리
- 술기: 수레
- 조새: 자새
- 마사진다: 깨여진다
- 양지: 얼굴
- 내굴: 연기
- 알바: 바보
- 애이요: 아니요
- 모무매: 무리매<sup>16)</sup>

(34) 11월 11일: 함남 함흥(韓春惠 寄)

- 스나●: 남자아이
- 짝 가져가오: 모다 가져가오
- 랍작 배운다: 업수이 보인다
- 너절하다: 허술하다
- 궁갱: 구멍
- 방치질: 다듬질
- 냉중에: 나중예
- 샘팡: 완연히
- 이봄세: 여보게
- 지렁: 간장
- ●폐: 작난
- 주제비: 체면
- 귀래: 자기
- 가스집: 처가집
- 폐렵다: 별하다
- 방치돌: 판돌
- 지원하다: 한참된다
- 새빈다: 낯다
- 구광: 마루
- 북장: 된장
- 뱀이 난다: 꼴이 난다
- 하이까닥: 하니까

---

16) 이는 ‘뭇매’를 뜻한다.

- 오푸덩: 얼른
- 다듬대: 흥두께
- 가새: 가위
- 찌리운다: 꾸지람 듯는다
- 각쟁: 갈퀴
- 자랑이: 어른
- 낭가: 나무
- 청괴: 청푸묵
- 쉬천: 그네
- 모가지: 목
- 체에딸: 처녀
- 편채메?: 편찬소?
- ●벽: 바람벽
- 개갑다: 가갑다
- 아지: 가지
- 꺾이: 광이
- 나달: 곡식알
- 선새미: 선생
- 새비: 새우
- 돌게바람: 회오리바람
- 뉘비: 누이
- 아슴채타: 미안하다
- 뽀비: 설합
- 욱빳소: 수고했소

(35) 11월 12일: 경남 부산(高尼流 寄)

- 용 문한다: 아조 못한다
- 잘했끄네: 잘하엿기에
- 뭇심니까: 무엇심니까
- ‘까’를 ‘꺼’로 發音함. 〈例〉옴니까, 줍니까, 합니까, 갑니까
- 자부림 온다: 줄립다
- 첫면이: 첫재
- 까자: 과자
- 팔월: 추석 〈註〉‘팔월’은 漢字 ‘八月’이 아니라 ‘秋夕’을 ‘팔월’이라 함.
- 그라지 마라: 그러케 하지 말나
- 알띠리 해라: 부즈런히 잘 하여라
- 난중에 각개: 내중에 가마
- 샘이: 수염
- 흠이 무뎠다: 흠이 무뎠다

(36) 11월 14일: 함북 부령(朴德順 寄)

- 솔냉기: 소나무
- 똥숙간: 뒤간
- 비둘기: 비답이
- 내구리: 연기
- 더비: 더위
- 재: 기와(瓦)
- 농군: 머슴
- 봉필: 분필
- 모새: 砂
- 땃따사다: 땃뜻하다

- |           |            |
|-----------|------------|
| ○ 베리기: 벼룩 | ○ 벌거지: 버러지 |
| ○ 나조: 밤   | ○ 배뽕: 배꼽   |
| ○ 소래가: 소리 | ○ 강창이: 삼   |
| ○ 세시: 세수  | ○ 배이: ●이   |
| ○ 굴과: 그네  | ○ 지지: 젓    |
| ○ 비눌: 비누  |            |

(37) 11월 20일: 경남 동래(高尼流 寄)

- |                   |                    |
|-------------------|--------------------|
| ○ 빵까이: 심부름스군      | ○ 성수: 형수           |
| ○ 성남: 형님          | ○ 낭기: 나무           |
| ○ 정낭: 뒷간          | ○ 점섬: 점심           |
| ○ 생이: 상여          | ○ 비들케: 비닭이         |
| ○ 궁갱이: 구멍         | ○ 등지리: 바구니         |
| ○ 멀꺼댕이: 머리칼       | ○ 덩더리: 잔등          |
| ○ 정 묵운나?: 저녁 먹어니? | ○ 핵고 당기나?: 학교 다니니? |

[부록 2] 《한글》지 수록 〈방언/사골말〉 목록

| 호수 | 투고자                | 지역        |
|----|--------------------|-----------|
| 27 | 金龍雲                | 전북 익산     |
| 31 | 張芝用 <sup>17)</sup> | 평북 벽동     |
| 32 | 李康壽                | 전남 함평     |
| 33 | 田蒙秀                | 평북 선천     |
| 34 | 李容桓                | 경남 하동     |
| 35 | 金麗珍                | 함북 길주     |
| 37 | 金成煥                | 평북 강계     |
| 38 | 李好春                | 경북 영천     |
| 39 | 張至用                | 평북 벽동     |
| 40 | 千赫                 | 함남 고원     |
| 41 | 池鳳旭                | 함남 정평     |
| 42 | 池鳳旭                | 함남 정평     |
| 43 | 池鳳旭                | 함남 정평     |
| 44 | 楊元和                | 황해 송화, 은율 |
| 45 | 金得龍                | 경북 대구     |
| 46 | 金貴仁                | 함북 경원     |
| 47 | 安昌燮                | 함북 경성     |
| 48 | 蔡大源                | 평남 용강     |
| 49 | 公錫柱                | 평북 벽동     |
| 50 | 張弼官                | 평북 후창     |
| 50 | R생                 | 함남 원산     |
| 50 | 金孝晟                | 황해 문화     |
| 51 | 李相寅                | 경북 안동(풍산) |
| 51 | 白南宗                | 전북 정읍     |
| 52 | 金奎煥                | 북간도       |
| 53 | 李相寅                | 경북 안동     |

| 호수 | 투고자                | 지역               |
|----|--------------------|------------------|
| 53 | 千赫                 | 함남 고원            |
| 54 | 金麗珍                | 함북 길주            |
| 55 | 千永熙                | 전남 광주            |
| 55 | 金成煥                | 평북 강계            |
| 56 | 安永俊                | 평북 용천            |
| 57 | 金麗珍                | 함북 길주            |
| 58 | 朴鍾周                | 함남 함흥            |
| 59 | 崔常壽                | 경남 동래            |
| 61 | 千赫                 | 함남 고원            |
| 62 | 千赫                 | 함남 고원            |
| 63 | 金麗珍                | 함북 길주            |
| 65 | 張至用                | 평북 창성            |
| 66 | 全吉星                | 평남 개천            |
| 67 | 全吉星                | 평남 개천            |
| 68 | 許哲                 | 함북 회령            |
| 69 | 崔金鎔                | 평북 의주            |
| 71 | 申淑澈                | 강원 춘천, 경북 울진     |
| 71 | 鄭泰潤                | 강원 강릉            |
| 72 | 申淑澈                | 강원 춘천, 경북 울진     |
| 72 | 鄭泰潤                | 강원 강릉            |
| 74 | 高泥流 <sup>18)</sup> | 경남 부산, 양산, 경북 대구 |
| 74 | 崔永漢 <sup>19)</sup> | 경남 마산            |
| 74 | 金泰元 <sup>20)</sup> | 경북 안동            |
| 77 | 李濟順                | 경북 경주            |
| 77 | 李寶順                | 제주               |
| 78 | 金玉順                | 전북 전주            |
| 78 | 朴貞姬                | 경북 대구            |



| 호수 | 투고자 | 지역        |
|----|-----|-----------|
| 78 | 李玉粉 | 경북 김천     |
| 78 | 張熙瓊 | 경남 통영     |
| 78 | 禹道禮 | 경기 부천     |
| 78 | 柳今祚 | 경북 달성     |
| 79 | 李錫麟 | 전국        |
| 79 | 金麗淳 | 평북 용천     |
| 79 | 劉水山 | 평북 강계     |
| 79 | 全竹葉 | 평북 의주     |
| 79 | 金根信 | 평남 평양     |
| 79 | 林淳德 | 평남 강서     |
| 80 | 崔判任 | 경북 대구     |
| 80 | 金夏增 | 전남 보성     |
| 80 | 金龜湖 | 평남 평양     |
| 80 | 都良淑 | 평남 평양     |
| 80 | 劉水山 | 평북 강계     |
| 80 | 趙貞淑 | 함남 함흥, 북청 |
| 80 | 洪靜淑 | 평북 정주     |
| 80 | 全德濟 | 전북 김제     |
| 80 | 金眞敎 | 평북 박천     |
| 80 | 吉昌麟 | 평북 영변     |
| 80 | 崔廈明 | 평북 용천     |
| 80 | 田鳳德 | 평남 평양     |
| 80 | 金南壽 | 평남 안주     |
| 80 | 金英順 | 평남 대동     |
| 80 | 金鍾範 | 평남 안주     |
| 80 | 嚴承娃 | 평남 평양     |
| 80 | 玄永疇 | 평남 용강     |

| 호수 | 투고자 | 지역    |
|----|-----|-------|
| 80 | 郭敎一 | 함북 성진 |
| 80 | 洪鎭植 | 함북 성진 |
| 80 | 崔時薰 | 함북 회령 |
| 80 | 朴鎬益 | 함남 함주 |
| 80 | 金剛  | 함남 이원 |
| 80 | 金鎭述 | 함남 함흥 |
| 80 | 張鉉稷 | 함남 함흥 |
| 80 | 韓國模 | 함남 함주 |
| 81 | 南應孫 | 함남 안변 |
| 81 | 金癸烈 | 강원 평강 |
| 81 | 張貳珍 | 황해 연백 |
| 81 | 金在은 | 경기 개성 |
| 81 | 尹順儀 | 경기 평택 |
| 81 | 吳末俊 | 충북 괴산 |
| 81 | 金奇龍 | 충북 진천 |
| 81 | 徐完錫 | 충북 보은 |
| 81 | 崔大鉉 | 충남 보령 |
| 81 | 李喜鍾 | 충남 논산 |
| 81 | 宋淑瓊 | 전북 군산 |
| 81 | 李桂淑 | 전북 전주 |
| 81 | 金判榮 | 전북 임실 |
| 81 | 咸玉  | 경남 동래 |
| 81 | 韓太壽 | 경북 상주 |
| 81 | 鄭元錫 | 경남 창원 |
| 81 | 權良秀 | 경남 동래 |
| 81 | 李德嬰 | 경남 동래 |
| 81 | 文良敎 | 경남 동래 |

| 호수 | 투고자 | 지역    |
|----|-----|-------|
| 84 | 權相根 | 경북 안동 |
| 84 | 申河均 | 경북 안동 |
| 84 | 讀者  | 제주    |
| 84 | 千赫  | 함남 고원 |
| 85 | 鄭白雲 | 함북 나진 |
| 86 | 鄭白雲 | 함북 나진 |
| 87 | 鄭白雲 | 함북 나진 |
| 88 | 鄭白雲 | 함북 나진 |
| 89 | 鄭白雲 | 함북 청진 |
| 90 | 理想人 | 전국    |
| 90 | 鄭白雲 | 함북 청진 |
| 91 | 鄭白雲 | 함북 청진 |
| 92 | 鄭白雲 | 함북 청진 |
| 93 | 鄭白雲 | 함북 청진 |

17) 이 ‘장지용(張芝用)’은 뒤(39호, 65호)의 ‘張至用’과 동일 인물이다.

18) 매일신보 〈사투리 모집〉의 조사원이기도 하다.

19) 매일신보 〈사투리 모집〉의 조사원이기도 하다.

20) 매일신보 〈사투리 모집〉의 조사원이기도 하다.

[부록 3] 《동아일보》의 〈방언·은어 채집〉 전문<sup>21)</sup>

| 날짜               | 투고자        | 지역          | 참고 |
|------------------|------------|-------------|----|
| 1962년 8월 6일      | 全泰樹<br>崔瑛植 | 함남 단천<br>서울 | 은어 |
| 1962년 8월 13일(석간) | 全泰樹        | 함남 단천       |    |
| 1962년 9월 3일      | 全泰樹        | 함남 단천       |    |
| 1962년 9월 17일     | 尹熙聲        | 함남 이원       |    |
| 1962년 9월 24일     | 尹熙聲        | 함남 이원       |    |
| 1962년 10월 17일    | 趙創玉        | 함남 고원       |    |
| 1962년 10월 23일    | 趙創玉        | 함남 고원       |    |
| 1963년 1월 30일     | 李柱泰        | 경남 거제       |    |
| 1963년 2월 11일     | 李柱泰        | 경남 거제       |    |

(1) 1962년 8월 6일: 함남 단천(全泰樹 寄)

【7】

- 가깝은: 가까운
- 가매: 가마솔
- 가비: 바지(下衣)
- 가새: 가위
- 각재: 쇠스랑
- 같그: 가루
- 감제: 감자
- 갓새야: 아양
- 까리: 무렵(頃)
- 개지/개애지: 강아지
- 깨깃알다: 깨끗하다
- 갠/개앤: 넷가
- 갱게체알다: 쓸 만하다
- 갱피살다: 몸이 마르고 키가 훌쩍하다
- 거르망: 호주머니
- 건줄: 간추림
- 걸미: 절편
- 게울: 거울(鏡)

21) ‘뜻풀이’나 ‘오자’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표기하고자 하였다. 다만, 원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는 현행 규정에 맞추어 약간 수정하였다(판독이 어려운 글자는 ‘●’로 표시). 한편 원문 입력 과정에 도움을 준 김 고은 대학원생(박사과정)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계울: 겨울(冬)
- 고래: 당신 ※尊待
- 고애: 고양이
- 고괘: 고비(回數)
- 콩고리: 콩크리트
- 꼴끼: 氣力
- 광차이: 삼(鍾)
- 평민증: 公民證
- 구새/구우새: 굴뚝
- 굽었다: 구웠다(燒), 굽었다(曲)
- 귀맥째이: 귀머거리
- 그지간: 그 사이
- 고대: 금방
- 고마이: 고등어
- 고차: 고추
- 곱은: 고운(麗)
- 꼭데: 꼭대기
- 과뵈: 寡婦
- 괴비: 고사리
- 구빈도라: 房돌레, 邊
- 굶: 구멍
- 꺾다: (꿈을) 꾸다
- 귀뽕: 귀 ※卑語
- 기지떡: 떡의 一種

【ㄴ】

- 남: 나무
- 낫았다: 나았다(治癒)
- 내앤장: 제기랄
- 노덕: 老婆
- 놀가지: 노루
- 눅었다: 누웠다(臥)
- 느불메기: 읊모기
- 낫다: 드리다(進上)
- 낫은: 나은(越等)
- 너무사나: 아닌 게 아니라
- 노친: 老婆 ※尊待
- 눅다: 싸다(廉價)
- 느불: 놀
- 늑: 놈

【ㄷ】

- 다라차: 다리끼
- 딸구다: 쫓아 버리다
- 대차다: 억세다
- 댕게지: 고추
- 덕대: 다락
- 도섭/동오섭: 수작
- 돕았다: 도왔다(協助)
- 똥시간: 뒋간
- 달걀: 달걀
- 대끼자: 고추
- 대취: 대추
- 떡구시: 떡절구
- 떼지: 양탈
- 독: 돛자리
- 동삼: 겨울(冬)
- 되끼: 도끼

- 되발라지게: 건방지게
- 두테바: 두께
- 드살: 精力
- 들쭉상질: 뒤범벅
- 되바: 原狀으로
- 뒤디리다: 두드리다
- 뜰뜰하다: 튼튼하다

【口】

- 빠득하면: 오죽이
- 마안돌기: 이웃 놀러가기
- 맑: 옷썩
- 매지/매애지: 망아지
- 멀: 무엇을
- 메뚜기치기: 자치기
- 맴: 몸
- 목새: 모래(砂)
- 무꾸: 무
- 무겁은: 무거운
- 미글어지다: 찢어지다
- 마스다: 부쉬 버리다
- 만뒤기: 송편
- 매삼: 몸부림
- 맵은: 매운(辛)
- 멀귀: 머루
- 메뛰기: 메뚜기
- 모키: 木器
- 됴: 몸
- 무도꿀: 무르팍
- 문뒤이: 문둥이
- 미내: 언제나

(2) 1962년 8월 6일 <은어>: 서울(崔瑛植 寄)

※ 선전 변: 市塵의 商人 間에는 ‘隱語’로 서로 ‘변’이라고 부른다. 市塵에서도 그 部類, 즉 商品에 따라 각각 다르다. 돈 去來와 物價指數에 사용되는 數字隱語.

- 탈건 = 一: ‘하나’의 뜻
- 탈여 = 三: ‘셋’의 뜻
- 교인 = 五: ‘다섯’의 뜻
- 줄백 = 七: ‘일곱’의 뜻
- 육자 = 九: ‘아홉’의 뜻
- 양건 = 十一: ‘열하나’의 뜻
- 건여 = 十三: ‘열셋’의 뜻
- 건인 = 十五: ‘열다섯’의 뜻
- 탈자 = 二: ‘둘’의 뜻
- 탈정 = 四: ‘넷’의 뜻
- 교짜 = 六: ‘여섯’의 뜻
- 태손이 = 八: ‘여덟’의 뜻
- 탈 = 十: ‘열’의 뜻
- 건차 = 十二: ‘열둘’의 뜻
- 건정 = 十四: ‘열넷’의 뜻
- 건교 = 十六: ‘열여섯’의 뜻

- 건백 = 十七: ‘열일곱’의 뜻
- 건옥 = 十九: ‘열아홉’의 뜻
- 건태 = 十八: ‘열여덟’의 뜻
- 탈탈 = 二十: ‘수물’의 뜻

※ 白木전 변

- 노강 = 一: ‘하나, 하’의 뜻
- 예단 = 三: ‘셋, 세’의 뜻
- 五: ‘다섯’의 경우는 未詳
- 꿩 = 七: ‘일곱’의 뜻
- 짜돌 = 九: ‘아홉’의 뜻
- 육시 = 二: ‘둘, 두’의 뜻
- 땅 = 四: ‘넷, 네’의 뜻
- 손이 = 六: ‘여섯’의 뜻
- 광능 = 八: ‘여덟’의 뜻

※ 어린 아이들의 ‘순라잡기, 자치기, 도둑놈잡기’의 數字 代用語

- 하날때 = 一: ‘하나’의 뜻
- 사미중 = 三: ‘셋’의 뜻
- 육남 = 五: ‘다섯’의 뜻
- 팔때 = 七: ‘일곱’의 뜻
- 고두래 = 九: ‘아홉’의 뜻
- 두알때 = 二: ‘둘’의 뜻
- 날때 = 四: ‘넷’의 뜻
- 거지 = 六: ‘여섯’의 뜻
- 장군 = 八: ‘여덟’의 뜻
- 뽕 = 十: ‘열’의 뜻

※ 여자 아이들이 恒用하는 數代語

- 잇두 = 一: ‘하나’의 뜻
- 한우 = 三: ‘셋’의 뜻
- 곱노도 = 五: ‘다섯’의 뜻
- 잇뚜 = 二: ‘둘’의 뜻
- 나나야 = 四: ‘넷’의 뜻

〈註〉 위의 隱語는 四, 五十年 前에 서울을 중심으로 呼稱하던 것이다.

(3) 1962년 8월 13일: 함남 단천(全泰樹 寄)

- 미두루: 전혀
- 미처: 채 ※副詞

【ㅂ】

- 바당: 부엌 바닥
- 반지쁘레: 쓸모없이 적게
- 뽕뽕이: 꿩무니를 빼어
- 배배하다: 달다(甘)
- 배재: 울타리
- 뱃대: 배 ※卑語
- 바줄: 빨랫줄
- 방치: 방망이
- 배미: 뱀
- 배우리: 병아리
- 뱌뱌: 연이어
- 버버리: 병어리

- 보골: 친절 올 때 가지고 오는 음식물
- 보존: 버선                          ○ 부젤: 심술
- 끓으다: 부르럽다                ○ 붓었다: 부었다(注入), 부풀었다
- 비내: 비녀

【人】

- 살찌기: 살췌
- 상생: 喪事
- 짝: 모두
- 새를 쓰다: 미친 짓을 하다
- 새쓰개: 미치광이
- 생통같다: 엉뚱하다
- 서분하다: 서운하다
- 세: 혀
- 썰기떡: 시루떡
- 췌지: 송아지
- 쇠쟁이: 소경
- 쇠체네: 냇물고기
- 슈: 숯
- 쉬/쉬아: 수수
- 슬그마아: 슬그머니
- 시메마: 슬그머니
- 신시뽀뽀하다: 멀쩡하다
- 상기: 아직
- 상뒤: 상투
- 새두래: 호들갑
- 새비: 새우
- 생즈랴다: 싱싱하다
- 췌었다: 흔하다
- 선스나: 사내
- 세투리: 씌바귀
- 소개: 솜(綿)
- 쇠: 소
- 쇠미/쇠에미: 수염
- 수갑: 장갑
- 술기: 수레(車)
- 쉬땡기: 수수깡
- 승천: 거스름돈
- 시재: 現金
- 실루: 참으로

## 【卜】

- 아달매: 알맹이
- 아잡조개: 아저씨와 조카
- 아지미: 아주머니
- 아재: 아저씨
- 앙까이: 主婦

## 【F】

- 양카다: 양칼지다



【ㄱ】

- 어간: 사이
- 어물쩍하게: 영큼스럽게
- 어부재기: 암살
- 얼라: 어린애
- 얼씨당: 어서
- 어레븐: 어려운
- 어벌뚝재: 敢行力
- 어불다: 함께하다
- 얼물하다: 영리하다

【ㅋ】

- 여비다: 여위다

【ㄴ】

- 에미나: 계집애

【ㄷ】

- 오꼬썰앙다: 심술궂다
- 오래비: 오빠
- 오미: 盡力
- 오래: 마을
- 오래지: 온전히
- 오툏이: 오בות하게

【ㄹ】

- 와누루: 툇 털어 놓고
- 왕창같은: 난데없는

【ㄴ】

- 월방재: 책상다리하고 앓음

【ㅇ】

- 용팍: 용마루

【ㅍ】

- 우들뜨레: 놀라서
- 우통: 어리석은 짓
- 우쁘다: 우습다

【ㅊ】

- 위긴다: 우긴다
- 위정: 일부러

【ㅍ】

- 윤다: 인두
- 융감: 감기

【ㅡ】

- 을썩갈다: 지저분하다

【1】

- 이까: 아닌 게 아니라                      ○ 이봉났다: 엇갈렸다
- 인차: 곧    ○ 일찍아이: 일찍
- 잇었다: 이었다(連)

【ㅈ】

- 자라이: 어른                                  ○ 째: 자루
- 장재: 율타리                                  ○ 재앵거: 자전거
- 재우: 어서

(4) 1962년 9월 3일: 함남 단천(全泰樹 寄)

- 재작하다: 없애다, 해 버리다              ○ 재ㅁ자리: 잠자리
- 쟁개비: 남비                                  ○ 저에저에: 조심조심
- 전디다: 견디(耐)                              ○ 재미/재에미: 저의 어머니
- 제우: 겨우                                      ○ 켜벽: 土壁
- 조매나: 여간해서                              ○ 조이: 졸쌀, 종이
- 조개: 조카                                      ○ 좌지: 신세
- 꺾끄맏다: 조그맏다                              ○ 주먼지: 주머니
- 주우절: 절간                                      ○ 좇두루: 두루두루
- 중태: 망태                                      ○ 즈글채잉다: 보잘것없다
- 즐그목질: 지름길                                  ○ 좇사리: 모습, 심술
- 쫓쫓하다: 축축하다                              ○ 지난: 저녁
- 지내: 아주                                      ○ 지대다: 依支하다
- 지름: 기름                                      ○ 지슴: 김
- 지신: 鬼神                                      ○ 지와: 다와
- 지왜: 기와                                      ○ 질: 길(路)
- 질똥하다: 鈍重하다                              ○ 짐: 蒸氣, 海苔
- 짐말: 까뿌는 일                                  ○ 짐씨: 金氏
- 짐해: 金海                                      ○ 집다: 縫다(縫)
- 짓써어: 비스듬히

【츠】

- 채미: 제법
- 초미: 치마
- 초지/초오지: 창호지
- 추꾸랴다: 더럽다, 아니꼽다
- 춤: 침
- 춥은: 추운(寒)
- 측살하다: 더럽다, 아니꼽다
- 치간: 뒷간

【ㄱ】

- 케톨레: 서투르게
- 콩질금: 콩나물

【ㅌ】

- 튜를하다: 방금 죽은 돼지나 개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털을 뽑다

【ㅍ】

- 팽애: 팽이
- 폐렵다: 변덕스럽다
- 포깨: 加減
- 포셈: 찢 감자의 表皮가 하얗게 갈라짐
- 포재: 재주

【ㅎ】

- 한늬: 한평생
- 한세: 한꺼번에
- 한제: 바깥
- 함판: 한가운데
- 핵교: 학교
- 호분자: 홀로

(5) 1962년 9월 17일: 함남 이원(尹熙聲 寄)

【ㄱ】

- 가르메기: 갈매기
- 가매보: 대들보
- 가리보다: 눈을 흘기다
- 가마치: 누룽지
- 가살쓰다: 아침하듯 아양을 떠다
- 감지: 감자
- 강내콩: 강낭콩
- 걸리: 건너
- 거부지: 陰毛
- 거치: 거적
- 개애마리: 개암나무 열매
- 개패재이: 개구쟁이
- 강내애: 옥수수
- 꺾지: 팽이
- 고만하다: 그만하다

- 고리고리: 골고루
- 고도이: 새끼 고등어
- 고토밤: 도토리
- 국뚝발이: 절름발이
- 궁타: 術策
- 금물: 肉類의 국물

【ㄴ】

- 노새쓰다: 망녕부리다
- 노전: 갈대로 엮은 자리
- 논끼: 노끈
- 납죽하다: 납작하다
- 내굴: 煙氣
- 널래: 어서 빨리

【ㄷ】

- 다사하다: 시끄럽다
- 담바: 담배
- 달킬내기: 다름박질하기
- 더구치다: 건드리다
- 떡장물: 수제비
- 동젯간: 부엌
- 동젯칼: 食刀
- 돌찌: 內衣
- 도래굽이: 해변에 바위가 많은 곳
- 대애구: 자꾸만
- 디비: 두부
- 두새: 老人 ※卑語

【ㄹ】

- 머숙하다: 멋적다
- 물등기: 물독
- 문지: 먼지
- 밋세기: 그냥, 계속해서
- 미꾸랑다: 보기 싫다
- 물개: 모래(砂)

(6) 1962년 9월 24일: 함남 이원(尹熙聲 寄)

【ㄷ】

- 반개질: 박치기
- 박죽: 밥주걱
- 범꽃: 칠죽꽃
- 보대: 女子의 陰部
- 봉채드리다: 봉숭아 드리다
- 복사리: 鰻魚
- 뽕빼기: 새끼 복어
- 볼토오: 따귀
- 베찌신: 짚신
- 비내: 비녀
- 빙고: 설매
- 비지개: 성냥
- 뱀이나다: 회가 나다
- 부출: 날개

- 부추리: 바보
- 백제예: 백정
- 배때/배때기: 배의 卑語
- 부수댕기: 부지갱이
- 버버리: 병어리

【ㅅ】

- 살래쓴다: 수다 떠다
- 새비: 새우
- 새나다: (음식물에) 질린다
- 수수: 쉬이 ※수수발: 쉬이발
- 셋대: 혀(舌) ※卑語
- 쉬이문뒤이: 문둥이
- 생칠하다: 魚類 등이 싱싱하다
- 새워이: 도련님, 총각
- 세천디(테): 다른 곳
- 쉬잇댕기: 수숫대
- 세추내: 미꾸라지

※수수발에서 나와 애기 간을 빼 먹는다는 데서 유래한 말

- 소래기: 고향, 큰소리
- 술개마선: 케이볼 카
- 아바사: 아버지
- 어저는: 인제는
- 엇서다: 反抗하여 빗나가는 것
- 얻어보다: 찾아보다
- 엉치: 엉덩이 ※卑語
- 얼리다: 거짓말하다
- 여가리: 옆
- 엔긴다: 옮길다
- 앵벽재이: 미장이
- 우내: 안개
- 올개코: 올개미
- 이내: 빨리 곧
- 옷쁘다: 우습다
- 아에미: 애기 엄마
- 손목치: 손 ※卑語
- 아적: 아침
- 아슴채잉다: 고맙다
- 어그멕이다: 反발심으로 야유하는 것
-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 열라: 어린아이
- 열대꾼: 사기꾼
- 열하다: 부끄럽다
- 역적바우: 약게 도는 사람
- 어므랑다: 약아빠지다
- 앵다: 앵두
- 윤다: 인두
- 임내: 흉내
- 인차: 빨리 곧
- 애기씨: 처녀 아가씨

【ㅈ】

- 자아집: 기와집
- 절기: 절구

- 재비: 自己 ※謙讓
- 집새: 참새
- 제매가: 두루마기
- 주두리: 주둥이
- 족차: 발(足) ※卑現
- 지개다: 기대다

【ㄷ】

- 측시간: 뒷간
- 측구랴다: 더럽다

【ㅌ】

- 탄재: 담노
- 통쇠: 피리

【ㅎ】

- 하부래비: 호래비
- 흘기: 그네
- 헤저버리다: 헤치다, 이리저리 뒤져 놓다

- 잼재: 잠자리
- 쟁고: 자전거
- 지우지기: 자기 고집대로
- 줄나다: 비우가 없다
- 장물을 끓이다: 국을 끓이다

(7) 1962년 10월 17일: 함남 고원(趙創玉 寄)

- ●●가갓방: 가게
- 가두기: 가랑잎
- 거마리: 거머리(蛭)
- 게사나: 거위(鵝)
- 궁색기/궁자기: 공작(孔雀)
- 고마야: 고등어(鯖)
- 귀밀: 귀리(燕麥)
- 날구, 나룻거: 나루
- 내굴: 내
- 뇌리기: 노래기(蚊)
- 달리: 달래(野蒜)
- 갈그: 가루
- 고뿔/고뿔얹이: 감기
- 두엄/겉굼: 거름(肥料)
- 농달, 웅달: 그늘(陰)
- 고즈래미: 고드름(氷柱)
- 곰지/곰텡이: 곰핍이
- 나말: 나물
- 낚수: 낚시
- 강까: 냇둑(河岸)
- 눈피비: 눈곱
- 달그: 닭

- 드럽다: 더럽다
- 누역이, 느역: 도롱이
- 툇안아: 도가니
- 짜질발: 들발
- 드레: 드레박
- 등때기: 등
- 매집아: 마디
- 만뒤: 만두
- 맹긴: 망건
- 멍지: 멍어(●)
- 메사구: 메기
- 뭇새: 뭇새(山鳥)
- 명질: 명절
- 하느종개: 미꾸리
- 마르레: 모자
- 버굼이: 바구니
- 도리채: 도리깨
- 자붕거: 도구
- 돛뽀존: 돛자리
- 두둥다리/두루징아: 두루마기
- 똥이: 둥지(巢)
- 뜨락: 뜰
- 탁배기: 막걸리
- 말꼬지: 말뚝
- 말새끼: 망아지
- 뽀또기: 메뚜기
- 메쥬: 메주
- 머르치: 멸치
- 무여: 무녀(巫女)
- 밀창: 미단이
- 섬: 먹서리
- 서납장때: 바지랑대

(8) 1962년 10월 23일: 함남 고원(趙創玉 寄)

- 주렴: 발(簾)
- 보손: 버선
- 벌거지: 벌레
- 버루지: 벼룩
- 보섭/보: 보습
- 북그: 북
- 비짜루: 비(帚)
- 드리: 비지
- 뽕이: 빙어(氷魚)
- 새닥다리: 사닥다리
- 잠치: 삼태기
- 버드락지/버들개: 버들치
- 버리: 벌(蜂)
- 버버리: 병어리
- 본대본대: 보늬(栗內簿皮)
- 바수다: 부수다
- 북뚜: 북띠(腹帶)
- 비눌: 비누
- 벼랑: 비렁
- 새영: 사냥
- 사슴이: 사슴
- 색갓: 삿갓(笠)

- 삭가래: 삭
- 생쥐: 생쥐
- 쌀눈: 싸라기눈
- 눅다: 싸다
- 소디빙이: 소뎡
- 당수밥: 소들치
- 도꼬바: 소꿍질
- 써거리: 소쿠리
- 성으레: 써레
- 멸: 쓸개
- 실꿍/실공: 시렁
- 애끼: 아우
- 애타다: 안타깝다
- 오좁: 오좁
- 잇어서: 연달아
- 잘그: 자루
- 재간: 재주
- 작도: 작두
- 쇠경: 장님
- 왁새: 왜가리
- 울미: 울미
- 이망: 이마
- 윤뒤: 인두
- 예비다: 여위다
- 절가락: 젓가락
- 추여/강영: 처마
- 흙/흙이: 칩
- 함까: 함깨
- 화차리: 회초리
- 상튀: 상투
- 새꼬래기: 새끼
- 썰리: 싸리
- 설마: 썰매
- 몽땅: 송두리째
- 솔낭그: 소나무
- 모려: 새김질
- 소개/겨왜: 솜(綿)
- 솟당/솟댕이: 수수깡
- 시누: 시누이
- 습습하다: 싱겁다
- 아북: 우욱
- 강냉이: 옥수수
- 매귀간: 외양간
- 입성/웃타: 옷
- 말자개: 자갈
- 못빠기: 장도리
- 잠뛰: 잔디
- 소젯: 우유
- 구텡이: 웅덩이
- 상관: 얼굴
- 오래: 이웃
- 칫떡/찰떡: 인절미
- 장재기: 장작
- 지약때: 저녁때
- 춤: 침
- 화루: 화로
- 셋바닥: 혀
- 돌개바람: 회리바람



(9) 1963년 1월 30일: 경남 거제(李柱泰 寄)

【ㄱ】

- 가리치다: 가르치다(敎)                      ○ 가리: 가루(粉)
- 가새: 가위                                      ○ 가수네: 나이가 어린 女子
- 가시 아지미: 妻弟                            ○ 가실: 가을(秋)
- 가온대: 가운데                                ○ 가차이: 가까이(近)
- 간지럽다: 가렵다                              ○ 갈비: 낙엽
- 갈빗대: 갈퀴                                   ○ 감자: 굴
- 강냉이: 옥수수                                ○ 강따리미끼: 제가끔
- 강생이: 강아지                                ○ 갓고온나: 가지고 오라
- 개가: 고기(漁)                                ○ 개액질하다: ㅌ하다
- 개여시: 여우                                   ○ 거두: 톱
- 거리뱅이: 거지(乞人)                        ○ 거무: 거미
- 거부지기: 쓰레기                              ○ 거성거리: 거위
- 거푸: 거둬                                      ○ 검당이: 검은사람(黑人)
- 꺾작: 傑作                                      ○ 고동: 고등
- 고랑: 도랑                                      ○ 고만두다: 그만두다
- 고오매: 고구마                                ○ 고장: 고추장
- 고치: 고추                                      ○ 곤친다: 고치다(改)
- 공팡이: 곰팡이                                ○ 콩고되: 콩크리트
- 광애: 광어                                      ○ 꽤않다: 괜찮다
- 구녕: 구멍(穴)                                ○ 구시: 便所
- 구살: 구슬(珠)

(10) 1963년 2월 11일: 경남 거제(李柱泰 寄)

- 국시: 국수                                      ○ 근테: 그네
- 기다: 이다                                      ○ 김승: 짐승(獸)
- 까락지: 반지                                   ○ 까마구: 까마귀
- 깍징이불: 등잔불                            ○ 깍챌다: 많이 있다

- 각테기: 각지
- 갓밭: 個人이 所有한 山
- 결덕질: 딸국질
- 꼬도밥: 고두밥
- 꼬뿌링: 포플린
- 꿩: 꿩
- 꾸심하다: 구수하다
- 꺾치리다: 구기다
- 끝으머리: 끝으리

【ㄴ】

- 나는물: 밀물
- 나락: 벼(稻)
- 나주다: 놓아두다
- 녁글: 덩굴

【ㄷ】

- 다비: 양말
- 단디이: 단단히
- 단판에: 단번에
- 대가리: 머리
- 대리비: 다리미
- 뒹다: 복다
- 도꾸: 도끼(斧)
- 도래바람: 회오리바람
- 도차: 도끼(斧)
- 돌가리: 세멘트
- 돌몽시: 돌맹이
- 되나깨나: 이무렇게나
- 두루매기: 두루마기
- 등저리: 광주리

- 깔보다: 알보다
- 꺼정: 까지
- 꼬도리: 고등어
- 꼬랭이: 꼬리(尾)
- 꼭두마리: 꼭대기
- 꿩수: 꺽가리(鐙)
- 꾸정물: 구중물
- 끈타불: 꼬나불

- 나부: 나비
- 나무지: 나머지
- 낭중에: 난중에
- 노성: 雷聲

- 닥알: 달걀
- 단초: 단추
- 당나구: 당나귀
- 대갈뱅이: 머리
- 대목: 木手
- 덩이: 덩어리
- 도판: 함석
- 도야지: 돼지(豚)
- 도톨: 도토리
- 돌각쟁이: 구두쇠
- 돌시: 돌
- 된장: 메주장
- 두지: 뒤주
- 드는물: 썰물

- 덩기: 덩겨
- 딸: 딸기
- 따구: 따위(等)
- 땡고마이: 보우드